

[테슬라] 중국서 430 만대 도어핸들 리콜 - 마진 압박 속 브랜드 신뢰 리스크로 확산

26.08.24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핵심 요약

- 중국서 430 만대 리콜, 테슬라 등 9 개사 사상 최대
- 소프트웨어 무선배포로 비용 부담은 제한적
- 마진 압박 속 브랜드 리스크로 주가 부담 가능

테슬라를 포함한 9 개 업체가 중국에서 430 만대 규모 리콜을 발표했다(21 일자). 사고·침수 등으로 전원이 끊기면 전동식 도어핸들이 작동하지 않아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, 중국 자동차 사상 최대 리콜이다. 테슬라가 10 여년 전 처음 도입해 다른 업체들이 따라 쓴 이 디자인이 이번 사태의 진원이 됐다.

대응은 두 갈래다. 수동 해제 위치를 알리는 라벨을 부착하고, 충돌 시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배포한다. 소프트웨어는 원격 처리라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, 라벨 부착은 소유주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해 불편이 따를 수 있다. 리콜은 현재 중국에 국한되며, 미국·유럽은 조사 단계일 뿐 리콜 결정은 아직 없다. 중국은 이 방식의 핸들을 2027 년부터 금지하기로 이미 정했다.

우리가 짚어온 핵심 우려는 8 분기 만에 최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(1.4%)과 다수 램프업이 겹친 실행 리스크였다. 이번 건 자체의 재무 충격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응 구조상 제한적일 공산이 크나, 시그니처 디자인이 중국 최대 리콜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인도 비중이 큰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에 부담이다. 주가에는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비용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. 미국·유럽 규제 당국의 후속 조사와 리콜 확대 여부, 중국 소비자 반응이 인도량에 남길 흔적을 지켜봐야 한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97.69	94.83	106.28	119.86	140.11
↘ 증가율	0.95%	-2.93%	12.07%	12.79%	16.89%
매출총이익	17.45	17.09	19.61	22.86	33.31
↘ 마진	17.86%	18.03%	18.45%	19.07%	23.77%
EBITDA	16.64	14.60	15.09	18.08	23.38
↘ 마진	17.04%	15.39%	14.19%	15.08%	16.69%
영업이익 (EBIT)	7.08	4.36	4.04	5.79	9.19
↘ 마진	7.24%	4.59%	3.80%	4.83%	6.56%
순이익	8.46	5.86	5.89	8.17	10.43
↘ 마진	8.66%	6.18%	5.54%	6.81%	7.45%
EPS	2.42	1.66	1.73	2.29	3.01
↘ 증가율	-22.44%	-31.40%	4.30%	32.32%	31.28%
잉여현금흐름 (FCF)	3.58	6.22	-8.93	-2.70	-1.34
P/E	198.1x	418.2x	209.6x	158.4x	120.7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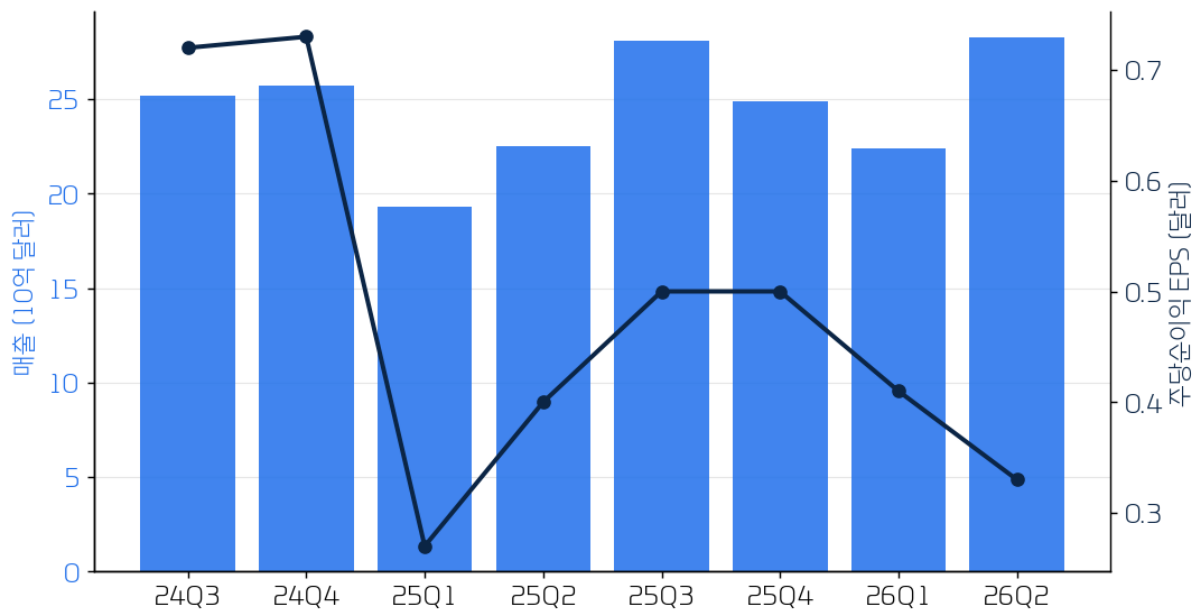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TSLA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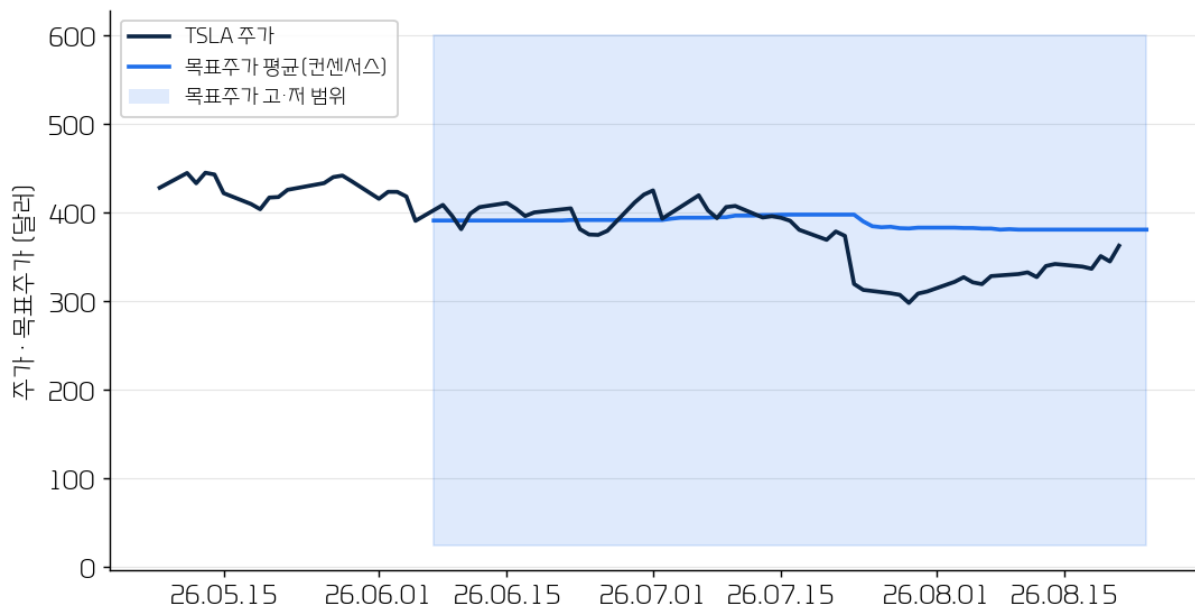


TSLA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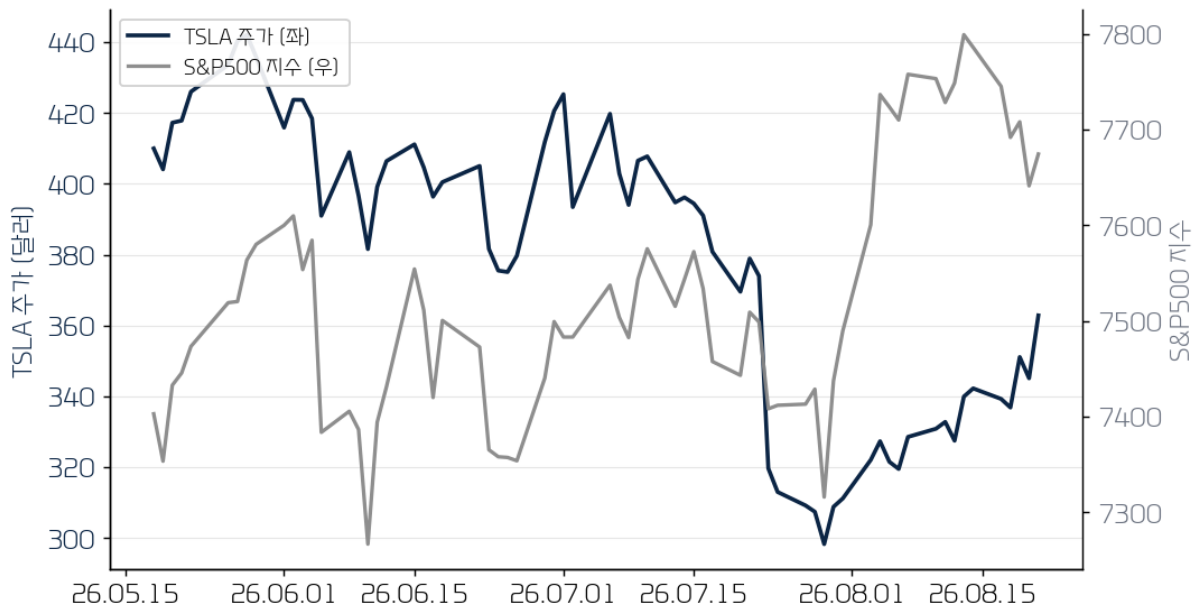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TSL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TSLA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